

예산안 처리 신경전... 내달 2일이나 9일이나

〈법정처리 시한〉 〈여야 합의 연장 가능성〉

與 “법정시한 준수” 野 “날치기뻔 국회마비” 공방

본회의 자동부제 ‘시금석’... 내일 원내대표 회의 주목

해해 예산안 심사 시한이 23일로 일주일 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제가 시행 돼 이날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달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본회의에 넘겨지지 되면 언제든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자동 부의제 시행 원년을 맞아 올해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 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날치기’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를 해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 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12월2일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처리 시한인 12월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2일 본회의엔 정부안과 새누리당의 수정안 이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자체 수정안을 낼 수는 있지만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처럼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입법 처리 등이 전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12월1일 정부안을 자동 부의하지 않고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 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까지는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의 단독 감행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 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예산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합의가 없는 여 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라는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누리 경제 예산 합의 준수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요구한 뒤 “사자방(대 강·차원외교·방위사업)과 창조경제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 예산은 제대로 삭 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오는 25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서 양측 이 어떻게든 문제 해결책을 찾지 않겠느냐 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누리과정 예산이나 ‘사자방’ 관련 예산, 박근혜 대통령의 역직 사업인 창조경제 예산 등에서 여야가 한발씩 양보 해 접점을 찾으면 촉박하긴 하나 기한 내 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1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의 당무회의에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동철(중주 광산갑)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정치생명 걸고 당대표직 도전하겠다”

“지난 10년간 역대 지도부 실패한 리더십 교체 필요”

문재인 2선 후퇴 촉구... 문희상과 비대위원 사퇴 설전도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광산 갑) 이 당내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TV 방송에 출연 “(내년 2·8전당대회)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당 대표직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 동안 두 번의 총 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누적된 역대 지도부

의 무능하고 무사 안일한 리더십이 자리 잡았다”며 “실패한 리더십 교체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는 정치생명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정치 생명 그 자체를 과감하게 걸어야 하는 자리”라며 “무능하고 무사 안 일한 리더십은 대표직에 정치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 들에게도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계 은퇴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2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적 자세”라고 지적했으며,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존경받는 훌륭한 원로로 남아야 한다. 권력을 아름답게 놓을 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전 대에 출마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사퇴 문제와 관련,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한 판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 위원장이 비대위원 사퇴 문제가 안건이 아니라며 폐회를 선언하려 하자, 김 의원이 “이러니까 당이 죽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문 위원장이 “당이 죽어가고 있다니, 요즘 젊은 것들이, 자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라며 버럭 화를 내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당무위원회의가 끝난 후, 오해를 풀고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발언과 관련, 김 의원은 23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당 대표 도전에 정치적 ‘올 안’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주승용, 공무원연금법 관련 ‘신종환 경사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23일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시에만 지급하는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의 ‘3년 이내’ 기한 제한을 삭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이른바 ‘신종환 경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년 이내 사망’이라는 제한으로 14년간 식물인간으로 투병하다 순직한 광주 광산경찰서 신 경사 유가족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환분도 받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 의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순직 경우에만으로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보상금 지급액이 늘 것만을 우려한 것으로 순직자의 사정을 도외시한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다”며 “반드시 바로 잡아 신종

환 경사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만, 사망시점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 의원은 “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으로 공무원 자살은 물론 가족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데 국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신 경사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더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임내현, 상원의원 자격 국제검사협회 총회 참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이 22일부터 27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검사협회(IAP) 제19차 총회 및 상원회의에 상원의원 자격으로 참석한다.

국제검사협회는 전 세계 130여 개국 25만 명의 검사들을 대표하는 기구이자,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자문 기구이다. 이번 총회에는 두바이 검찰총장, 한국 검찰총장 및 프랑스·스웨덴 등 24개국 검찰총장과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고위 검찰간부 및 전·현직 국제검사협회 회장 등 400여명의 검사들이 참석한다.

임 의원은 검찰 재직 시 지난 2003년 8월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으로 위촉돼

지난 2004년 재직시 제9차 국제검사협회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공로로 지난 2006년 8월 파리 총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700여만명의 재외동포가 있고, 2800여만명의 내국인이 해외에 나가고 있어 이들이 다른 나라 형사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 각국 검찰간부들과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두언 의원 존재감 드러낼까

수익원 수취혐의 무죄 선고... 정치 역할 관심

MB자원의외교 비사 회고록 완성

저축은행에서 수 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1일 무죄 선고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울에서는 몇 안 되는 중진(3선)인 정 의원은 제18대 국회까지 개혁적 목소리를 내며 당내 소장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만큼 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23일 보도 자료에서 “지난날 저는 너무 교만했고, 황상 제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솔직히 경멸하고 증오했다”면서 “저는 법으로는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

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면서 “하지만 결말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만수기에 성공해 ‘왕의 남자’로 통했던 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파동’에 앞장선 후부터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며 급기야 구속되기까지 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의외교 비사를 기록한 회고록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오시아노 관광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

1. 위치

- 전남 해남군 화정면 주광리, 화정리 일원(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2. 입주신청 대상 부지

가. 예정가격 결정 공지

구분	사실명	면적	연면적 (㎡)	예정가격 (천원)	당가 (천원/㎡)	비고
숙박 시설	가	710.0	583	137,559	193,745	
	나	784.0	643	152,881	194,746	
	다	790.0	648	151,516	191,732	
	라	893.0	697	156,701	192,744	
	마	840.0	699	161,105	191,732	
	바	840.0	699	161,105	191,732	
	사	913.0	739	175,975	192,744	
	총계	5,890.0	4,668	1,096,642		
	가	731.0	600	140,896	192,744	
	나	759.0	620	145,714	192,744	
	다	769.0	631	148,220	192,744	
라	792.0	650	152,853	192,744		
마	792.0	650	153,446	193,745		
바	854.0	701	170,544	199,701		
사	855.0	702	170,744	199,701		
총계	5,549.0	4,554	1,082,217			
휴양시설	가	1,472.0	1,208	283,968	199,700	
	나	1,476.0	1,210	285,773	193,744	
	다	1,476.0	1,210	284,568	199,700	
	라	1,476.0	1,211	285,966	193,744	
	총계	5,896.0	4,839	1,340,255		
문화 시설	가	1,900.0	952	224,743	193,744	
	나	1,900.0	953	229,966	197,748	
총계	2,300.0	1,105	454,709			
숙박 시설	합계	349,496.9	220,000	69,079,027	204,705	
	1	2,383.0	1,079	1,306,193	203,704	
	2	6,540.0	1,695	1,333,851	203,704	
	3	5,913.0	1,350	1,187,039	200,751	
	4	6,454.4	1,478	1,291,262	199,750	
	총계	26,278.4	6,000	6,513,153		
	휴양시설	30,059.7	8,400	5,285,267	175,826	원자형
	문화시설	37,845.5	12,500	7,101,234	187,637	원자형
	1	3,178.0	1,993	615,877	193,794	
	2	2,968.0	1,855	573,242	193,794	
3	5,282.0	3,312	1,023,619	193,794		
4	5,294.0	3,320	1,036,543	195,796		
5	6,194.0	3,894	1,292,759	195,796		
6	5,995.0	3,789	1,181,793	193,794		
7	4,989.0	2,877	889,320	193,794		
총계	33,480.0	21,000	6,513,153			
휴양시설	4,870.0	1,840	735,794	157,958	원자형	
문화시설	14,902.4	3,000	1,738,607	115,966		
합계	40,153.4	3,600	3,918,827	97,568	원자형	
아파트단지	27,198.5	9,400	5,424,177	199,649		
아파트단지	25,904.0	8,540	4,854,248	189,989	원자형	
휴양 시설	240,291.9	74,380	40,989,697			
총 계	589,797.7	284,780	110,567,734			

나. 예정가격 이 결정 공지(적용사 후 예정가격 결정 예정)

구분	사실명	연면적 (㎡)	연면적 (㎡)	추정가격 (천원)	비고
영기시설	아파트단지	15,108.9	17,530	4,011,440	
	태양에너지	14,895.8	13,700	3,954,888	
	비무선랜	14,741.3	13,700	4,134,367	
	남도문화관광지	16,323.4	13,260	4,433,528	
	배	21,102.3	21,100	5,000,581	
	복합상가	13,025.1	17,500	2,192,681	3단계지정개발가능
	복합상가	16,184.3	17,500	4,288,700	3단계지정개발가능
	전통시장	9,776.0	3,650	2,131,168	
	전통시장	17,558.3	4,500	3,432,589	
	총 계	139,395.4	128,240	34,182,783	
문화 시설	SEA-WORLD	114,845.2	21,000	24,934,938	원자형, 공용수면 66,500㎡ 활용가능
	X-게임장	2,374.7	100	285,000	
총 계	117,220.0	6,200	4,259,888		
휴양시설	남도문화관광지	24,830.9	10,300	2,979,720	
	총 계	24,830.9	10,300	2,979,720	
총 계	300,967.7	166,840	41,807,360		

3. 입주신청자격

- 관광지 내 적합한 관광시설을 건설/운영할 능력이 있는 주체

4. 입주신청안내

가. 입주신청 마감: 2014년 12월 15일(월) 18:00
 나. 입주신청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제안조건일체 포함) 등
 다. 입주신청장소 및 문의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번지 17층 한국관광공사 관광자문개발팀
 전화: 02-729-6506 fax: 02-319-5197

5. 입주자 선정

-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경쟁입찰 실시
 * 예정가격이 미달장면 부지는 적격자 있을 경우, 경쟁평가 및 예정가격 선정 예정임

6. 기타 사항

가. 입주유역사 등에 연쇄된 입주조건 등을 변경하여 제안코자 하는 사업자는 별도 문의 요망
 나. 전체 부지 일괄 매수 등, 여러부지를 동시에 입주신청하는 사업자 우대가능
 * 입주신청 및 사업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한 입주신청유역사, 입주자 준수사항, 토지이용계획도 등 관련자료를 반드시 열람하여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도, 마스터플랜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문 열람>: http://kto.visitkorea.or.kr "공고문" 클릭

2015 선견지명 부동산 시장 전망과 분석 무료 대 특강

부동산 최고 실무 전문가 김영표 대표의 확실하게 성공하는 부동산 성공투자 비법!!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4. 11. 26(수)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 / 의 / 내 / 용

1. 2014년, 본격적 부동산 회복시장의 신호탄을 쏘았다 - 회경관 노믹스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2.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 전략
3. 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투자처 매물분석 및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